

#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질문의원

김기홍의원

## < 질 문 내 용 >

1.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영 적자에 대한 대책은?<문화체육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됨.  
설립 당시에는 강서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공단의  
경영수입을 증대, 구 재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영수익은 고사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수영장 등의 운영적자는  
35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설립부터 2012년 말까지 총 11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추정됨.  
그동안 구의회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경고와 촉구를 지속해온바  
있으며 공단에서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0년도에 사업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용역을 시행한바 있음. 그러나 적자폭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경영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집행부와 공단이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스스로 뼈를 깎는  
의지가 부족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음.  
사회복지비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증가하여 구 재정은 이제  
고갈상태에 이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단의 경영개선은 이제 권고,  
노력의 한계를 넘어 존폐를 고려하여야 할 상태라 아니할 수 없음.  
집행부에서는 우선 공단의 사업중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하여 공단의 군살을 빼는데 치중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제출하기 바람.

2. 강서문화원,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의 운영에 대한 대책은?

<문화체육과>

강서문화원의 문화센터와 문화원의 위탁시설인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이 최근 3년간 예산과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 43억 8141만원, 수입 9억 5148만원으로 34억 2693만원의 지출이 발생, 매년 1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강서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센터 10억 7574만원, 허준박물관 12억 4088만원, 겸재정선기념관 11억 1029만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강서문화원은 특수법인이나 이사회를 통한 자체수입이 빈약한 실정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 문화원 건물 이전을 계획하고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이전 소요예산이 71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구의 긴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전계획은 재고되어야 함.

강서문화원의 문화센터는 각 자치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의 운영은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상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 바람.